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헌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윤명식
편집국장: 손경수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100 FAX: 563-3932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배가운동에 모두 앞장서자

제2차 태신자 카드 기록하여 봉헌을!
거저 받은 은혜 나누어주는 진리 깨닫고

우리 교회가 92년도 목회 지침으로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될 것”을 표어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제 성구와 함께 배가 운동에 앞장 서고 있다.

이미 제1차 태신자 카드 기록으로 약 4천명의 전도 대상자들이 잉태되어 있고, 오는 6월 28일에는 제2차로 나의 태신자를 봉헌하는 날로 정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배가운동은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며, 이와 병행하여 24시간 연속 기도회도 지난 15일을 기해 제1교구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1차 배가운동 및 태신자 기록으로 교인 성장(교회학교 포함) 통계가 비공식적으로 약 12퍼센트 증가한 형편이며, 이런 추세로 계속 성장할 경우 금년 말까지는 약 40퍼센트 이상 교인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18교구가 22교구까지 확대될 조짐이고, 약 5만 성도로 불어날 예정이다.

예수님 말씀과같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한국 교회 전체 인구의 비율에 따라 4명 중 3명의 불신자를 향해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 중헌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대학부

29일 수양회 개최

대학부(부장 이훈 장로, 지도 이병각 목사)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중헌기독교원에서 여름 수양회를 개최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담대하라”는 주제 아래 4박 5일 동안 선택식 특강, 강의, 찬양 집회, 기도회 등으로 진행된다.

이 수양회는 회원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불신자와 장기 결석자(없는 양)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헌원 수양회이기도 하다.

중헌세계선교연구원
제2기 오늘 수료 및 개강

중헌세계선교연구원(원장 신성종 목사)은 오늘 (6월 28일) 저녁 7시 찬양 예배 시간에 제1기 수료식 및 제2기 개강식을 갖는다.

이 연구원은 구체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훈련된 전문 선교사 및 평신도 선교사를 양성, 파송함으로써, 선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하기 위하여 국내 유수

의 신학자와 선교사들을 강사로 모시고 93년 6월 13일까지 52주 동안 선교에 필요한 강의로 진행된다.

이를 위하여 노봉린 박사, 전호진 박사, 전재욱 박사, 이동주 박사, 강승삼 박사, 권형기 박사, 우심화 교수 및 기타 해외 선교사들이 강사로 수고하게 된다.

중헌프리즘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 실시된 사랑의 헌혈 운동에 약 5백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 실천을 아낌없이 발휘하였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신적 참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랑의 미덕이었다.

피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순위가 1위에 꼽힌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몸 속의 피도 그 어느 불신자보다 깨끗하다는 얘기다.

◎...중헌금요찬양 참석에 각 교구 식구들이 경쟁이 붙었다.

이 집회를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각 교구 별로 좌석을 마련하여 앉게 했는데, 지난 주 간에는 본당 1층이 꽉 차는 열기를 보였다. 특별히 새롭게 신설된 18교구 식구들이 기존

교구보다 많이 참석하여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 넘쳤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성경 교훈이 신설된 18교구뿐 아니라 전 교구에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교회가 배가운동 차원에서 진행하는 금요 찬양 집회가 성도들의 참여로 차고 넘쳐 찬양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소동, 고모라성 같은 강남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오게 하는 열심을 보이자.

◎...24시간 연속 기도회가 지난 15일부

터 다시 시작되었다. 지난 1월부터 실시된 연속 기도회는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및 권찰급 이상 중헌의 가족들이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마쳤는데, 이번에는 1교구부터 다시 기도회를 계속하게 된다.

원하기는 교구 담당 지도 교역자들은 날짜와 시간에 할당된 교구 식구들의 참여 여부를 늘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정성을 보여야겠다. 가끔 빠지는 사람이 있으니

까.

카메라 초점



▲ 우리 교회는 지난 6월 14일 사랑의 헌혈 운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다음 주일(6월 28일)은 태신자카드 제출하는 날

1. 오늘 받은 카드에 태신자들의 이름, 전화 번호, 주소를 확인하여 기록합니다.
2. 구역에 소속된 분들은 구역 모임 때(6월 26일) 작성하여 구역장에게 제출하며 구역장은 이를 모아 주일에 해당 교구 간사에게 제출합니다.
3. 작성자의 소속도 반드시 기록합니다.
4. 제1차 때 작성하신 분들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도로써 준비합니다

중헌 북한 선교 세미나

중헌교회는 북방 선교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한 정보 및 자료 교환을 위하여 북방 선교의 민족적 과제인 북한 선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북한 선교 세미나를 갖 고자 합니다.

· 일시: 6월 27일 오후 3시~6시
· 장소: 갈릴리움
· 대상: 북한선교에 관심있는 성도
· 주최: 중헌교회 세계선교위원회
· 후원: 통일연수원, 극동방송, 국민일보

시 간	주 제	강 사
오후 3시	통일의 전망과 북한 선교의 향후 과제	이원설 (교육부 교육심의회장)
오후 4시	남북 대화와 북한 선교	최문현 (통일연수원장)
오후 6시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전략	김상복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

중헌전도대 기도회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다 모여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건집니다.

· 일시: 6월 24일 2부 예배 후
· 장소: 베다니홀
· 참가대상: 중헌전도대 제14기 수료자 전원
 관심 있는 성도

학원 전도회 특강

· 일시: 6월 27일(토) 오후 3시
· 장소: 베다니홀
· 주제: 성경적 기독교 교육
· 강사: 김대영 선생님(현 대광고교 교사)

장년 3부 특강

· 일시: 6월 28일 12시 30분
· 장소: 교육관 314호
· 주제: 기독교인의 생활과 법률
· 강사: 이찬욱 집사(변호사)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팔복(八福) -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5:1~12)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흔히 산상수훈, 산상보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설교는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과 대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나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고, 이들로 하여금 참된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비결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이고, 참된 의가 무엇인지, 성도들의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법과 같은 귀중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산상설교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이 차지하는 위치가 크고 그 중에서도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헌법이고 우리를 위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1. 예수님의 교훈과 유대인의 사고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의 핵심이 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내적인 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가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를 행위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마음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셋째,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에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이게 한 후에 그 자리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탐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물질을 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다섯째,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이 비판하는 바로 그 비판으로 너희들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이든 부정적인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와같이 산상설교와 그 당시의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제자의 삶의 자세

팔복은 행복에 이르는 사다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팔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내용 중 3절부터 6절까지는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에 관하여, 7절부터 12절까지는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 때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어

제자들은 자신에 대하여는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며, 타인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열매를, 자신에 대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열매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화평케 하는 열매를,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를 위한 쉼박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부 합해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5:3)

첫째로 제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부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복 신앙에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물질적인 축복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잠정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지만, 기독교의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심령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그 속에 귀한 것을 채워야 하는데, 채우기 전에 먼저 그것을 비워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말씀은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자기 만족에 도취되면 안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만족하고 지식에 만족하고 권력에 만족하기 때문에 신앙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해 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5:5)

셋째로 타인들을 대할 때 온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맹수들을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거에 맹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교만이 없는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믿지 아니하고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 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적인 땅이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뛰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여기저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5:6)

넷째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세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다는 말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배부르다는 말은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만족함 없이 불평과 불만에 쌓여가는 이유는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지식과 쾌락과 같은 세상 것들에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충현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들에 대해서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디를 가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I. 삶의 최고 가치관

처음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하여 세례받으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은 바꾸어 말한다면 "삶의 최고 가치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다. 1648년 7월 20일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문제가 이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질서와 규범이 정해져 있고, 이 질서와 규범은 법과 관례로 정한다. 좋은 관례가 있고 법이 정해진 사회는 선진 사회이다. 그래서 모두가 이것을 따르려고 하며 배우려 한다. 이것은 보통 시민의 생활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더 좋은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의 질서, 사람의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법과 규범이 다스리는 사회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사람과 사람만을 위해서 지키지는 질서와 규범 외에도 최상의 목표와 규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은 양심이다. 양심의 법과 규범이다. 법에도 자연법과 실정법이 있다. 자연법은 양심에 따라 사람들 스스로 지키는 법이다. 그러나 실정법은 성문화된 법으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권을 가진 공권력이 법에 따라 범법자를 처벌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정법을 지키려 한다.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법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키며 자기 양심에 따라 지키는 법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 규범이 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스스로가 정한 가치관이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충현논단

현대인의 신앙 생활(1)

I. 삶의 최고 가치관

III. 기록 신앙, 불건전한 성령 운동

II. 새로운 가치관을 위한 결단

IV. 사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조화



김차생 장로
(인사위원)

것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도덕적 수준을 알게 된다.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 양심에 의한 판단에 따라 지켜지는 자연법이다. "사람의 제일되고 가장 높은 목적"의 설정도 공교회가 신자들에게 최고의 가치관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인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 하는 것"이라고 정했다. 이것은 실정법은 아니지만 공교회가 정한 신자되는 첫 번째 고백으로 인간으로써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고 묻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야말로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관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삶의 규범이다. 우리들의 신앙 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야말로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보다 우월하다고 우리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가치 기준이라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실정법을 무시하게 되어 순교도 불사했던 것이다. 그들은 스테판처럼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사자 밥이 되기도 했다.

II. 새로운 가치관을 위한 결단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일원이 되는 것을 "결단"이라고 말한다. 이 결단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맺고 끊는 힘"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 인생의 최고 가치라는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단정을 했다면, 맺고 끊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 한국 교회의 초대 회심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려고 교회에 들어올 때는 이것이 분명했다. 교회가 주초, 즉 술과 담배를 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그 순간 술을 끊고 담배대를 분질러버리는 결단을 눈에 보이게 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도 철저했다. 그리고 당시의 양반들의 풍속대로 아내 외에 태리고 살던 애첩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도 했다. 우리는 이 같은 결단을 삭개오의 결단에서도 볼 수 있다. 토색질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스스로 예수님께 말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게 엄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교회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다. 사실 이러한 결단 없이 신자가 된 사람들이 많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리는 결단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 보니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버릴 수 있다는 생각 없이는 시정의 잡배와 기독교인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1백년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가신 분들의 생활을 보면 그 분들은 순간순간을 결단의 색감으로 생각하며 살고 갔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의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다 취하고 보면 세속적인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절대로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이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데, 혹은 장로라고 하기는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 하나 다른 점이 없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것은 곧 최고의 가치관

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결단이 없다는 증거인 것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맺고 끊음이 없이 그저 물에 물탄 듯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교회로서의 활기를 잃고 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교회의 권정조례가 사문서가 되어버린 지도 오래되었다. 어떤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가 대원 중에 술과 담배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 몇 번이나 경고를 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자 교회의 목사에게 그를 찬양대에서 사직시킬 것을 권했다. 그러나 목사는 그냥 두라고 했다. 목사의 말은 사랑으로 포용하라는 것이었다. 그 목사에게는 찬양대원들의 성결한 생활보다 고운 목소리, 멋진 화음이 더 가치 있어 보인 것이다. 그 찬양대장은 자기 스스로가 그 교회 지휘자를 포기했다.

한국 교회는 지금 회칠한 무덤처럼 외면만 화려하지, 속은 썩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교회법을 어기고 교회의 체면을 손상시켜도 교회는 처벌을 못한다. 또 권징을 해도 그렇다. 이 교회에서 책벌(責罰) 받은 사람이 내일 아침 다른 교회에 나가면 "열시구나." 하고 받아들인다. 그 사람의 과거는 무관하고, 단지 그 사람의 교회 봉사(돈 많이 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사실 때문인지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교회는 책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유보하는 것이다. 교회는 끊임없는 개혁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 생활은 회개하는 일로 시작하고 회개하는 일로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인들을 지도하는 교회의 입장도 같아야 한다. (계속)

장로칼럼

집중(集中)과 협력(協力)의 원칙



김재명 장로
(소양부 부장)

전투에서 적을 섬멸하고 목표를 점령, 승리를 쟁취하려면 공격 전투를 감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중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에 집중의 원칙과 협조의 원칙이다. 병력과 화력을 포함한 부대의 모든 전투 수단을 총동원하여 목표와 주공방향에 집중 투입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때에 전투에 참가하는 모든 부대는 상하급 부대와 인접 부대간, 그리고 병사와 병사간에 협력이 원활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투 능력을 백배센트 발휘할 수 있다. 병력의 분산 운영과 불화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패전을 부를 따름이다.

그러면 이 집중의 원칙과 협조의 원칙을 우리 성도들

과 마귀와의 싸움, 곧 영의 전쟁에는 적용될 수 없을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집중과 협력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힘들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신명기 6장 5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집중과 협력해야 할 이유와 목표, 그리고 방법과 중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고성의 공격에서(수6), 한나의 기도에서(삼상 2:10이하), 나느웨 백성의 회개에서(은 3:1~10),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도들의 기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고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서로 협력하여 마음과 힘을 집중한 결과는 승리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아이성의 싸움(수7), 이나 요아사왕의 아람 사람과의 싸움(왕하12:17이하)에서와 같이 순종치 않고 힘을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아간 한 사람이었음지라도 배역자가 있어 온전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패망뿐이었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의 전쟁에서의 집중과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금년의 우리 교회의 목표는 배가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과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더 집중과 협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그런데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하나가 되자, 협력하자"는 구호는 만발하는데

실제 행동은 이 글을 쓰는 내 자신부터 그렇지만도 않다. 적을 앞에 두고 싸우는 전장에서와는 달리 협력을 안해도 당장에 생명의 위협이나 압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이를 가로막는 주범임에는 틀림이 없다. 협력은 겸손을 전제로 한다. 나를 먼저 보고 남을 볼 때에는 내가 커 보이고 잘 나보이지만, 하늘나라를 먼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티끌만도 못한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때야 비로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겼던 교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변하고, 자제가 협력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우리 모두 다만이 할 수 있다는 자만과 우월감, 너 혼자 잘해보라는 식의 조소와 방관,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하는 의구심을 모두 떨쳐버리고 한 사람의 낙오자가 있을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자. 더딜지라도 함께 전진대열에 서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힘을 모아 서로 협력하며 배가운동에 매진하자.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배가의 풍성한 열매와 아울러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음호 칼럼은 김영길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배가운동이 온 교회의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확실히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생명 운동이 운동만으로 끝날 수는 없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아울러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요구된다.

올해의 절반을 보내는 6월의 마지막 주(6월 28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태신자를 작성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이 상반기에 작성한 태신자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후 4개월 동안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오는 11월 첫째 주에는 우리의 모든 열매들을 총동원하여 쌓아 하나님께 바치며 큰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어야 한다.

1. 우리는 태신자를 발견하고 얻으려는 적극적인 열정을 품어야 한다.

아직도 나에게서 사람이 없다고 체념 속에 안주해 있거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나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을 발견해보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령의 열정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어린 양 같은 태신자들을 준비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 머리 속에 태신자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태신자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가슴에 품은 일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2. 나의 태신자를 확실히 얻기 위한 10가지 전략

(1)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의 태신자를 지혜롭게 선정하라.

우리는 주위의 많은 허수(虛數) 가운데서 나의 태신자가 될 수 있는 실수(實數), 즉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가 모일 때 구령의 전략과 힘은 배가된다. 이번 주 구역 모임 때에는(26일) 전 구역원들이 구역 총동원으로 모여서 구역장 책임 하에 그 장소에서 태신자를 적어 내도록 한다. 교회학교는 이에 준하여 각 학급을 활용한다.

(5) 제1차 때 작성하지 못한 사람은 물론, 제1차 때 작성하여 낸 사람도 다시

그 이전이라도 이 10-데이를 바라보면서 계속 인도를 위해 힘써야 한다.

(9) 기도로 일관하라.
태신자를 작성할 때나, 그들을 인도할 때 계속 기도로 그들을 품은 일은 이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10)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라.

인도자는 복음의 무기를 늘 휴대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은 태신자를 확실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력이다.

3. 태신자를 위한 후속 조치

모든 태신자는 컴퓨터에 수록되어 교구별 문서로 관리된다. 7월 초까지 작정이 끝나면 우리는 이 태신자들을 붙들고 올해의 여름을 기도로 씨름하며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밀착 인도하게 하실지도 모르며, 또 한 명을 놓고 기도했지만 두 명이나 열 명도 주실지 누가 아는가?

기도하면서 아울러 전도 메시지가 발송되어야 한다. 수확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도 메시지를 담은 편지나 소책자, 혹은 복사님의 전도 설교를 담은 테이프를 잘 활용할 수 있다. 배가운동본부에서는 인도자를 위해 이를 준비할 것이다. 이 기간 중에 인도자들의 동기 부여, 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나의 태신자를 확실히 얻기 위하여

- 배가운동 홍보분과 제공 -

(2) 그들의 주소를 확보하라.

지난 1차 때 많은 태신자들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도울 길이 없었다. 적어도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만큼은 확보되어야 한다. 작성자의 이름, 주소도 반드시 적도록 하자.

(3) 그들과의 관계를 조심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인도자와 태신자의 성공적인 관계는 교회와 태신자, 나아가 예수님과 그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4) 구역 모임을 태신자 운동의 본부로 삼으라.

한번 작성, 제출하도록 하자.

(6) 교역자의 도움을 활용하자.

각 구역을 순회하는 교구 교역자는 태신자를 작성, 제출하는 일과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요청하는 구역과 인도자를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

(7) 인도할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라.

우리의 목표는 태신자 작성에 있다기보다 그들을 인도함(더 구체적으로, 교적번호를 부여받도록 등록함)에 있다.

(8) 인도할 시기를 잘 선정하라.

오는 11월 1일(주일)은 중헌의 모든 성도와 모든 태신자들의 총동원주일이다.

금주의 기도제목

1.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 운동, 봉사과 전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에게 특별한 지도력과 건강을 더하여주시고, 보좌하는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 힘과 영력을 더하여주소서.

3. 교인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태신자 갖기 - 제2차 카드 작성 : 6월 28일, 교구 배가, 중헌금요찬양을 위하여).

4. 우리 세대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북한선교).

5. 중헌봉사관 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자, 물자, 재정을 허락하여주소서.

6.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어 민족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7. 전교인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8. 각 교구가 부흥하게 하소서.

· 제1교구 : 교구 식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 제2교구 : ① 모든 성도들의 주일 생수를 위해 ② 교구마다 금요찬양집회에 250명 이상 참석하도록

· 제3교구 : ① 구역 및 전도회마다 기도, 말씀, 성령,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② 개인과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 제4교구 : 모범적 교구 및 구

역이 되도록

· 제5교구 : ① 원거리에서 은혜가 더욱 충만하도록 ② 교구 가족들이 모든 행사에 더욱 많이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부흥, 배가 되도록

· 제6교구 : ① 교구 가족들이 힘써 전도하고 신자 작성에 모두 참여하여 배가되며 가족이 모두 구원받도록 ② 금요찬양집회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임하여 구역과 가정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님을 위해 힘있게 일하도록

· 제7교구 : ① 구역이 부흥하게 하소서. ② 성도들의 사업과 외국에 출타 중인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 제8교구 : ① 각종 예배 및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구가 되도록 ② 교구 일꾼들이 더욱 열심을 내어 중헌, 봉사하도록

· 제9교구 : 교구 활성화를 위한 구역 예배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 제10교구 : ① 교통난을 해결해주소서(버스 운행). ② 젊은 세대 남성들이 부흥하게 하소서.

· 제11교구 : 강동 구역의 임대 아파트 거주 성도들이 무사히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소서(8세대).

· 제12교구 : 모범적 교구로 성 잘하게 하소서.

· 제13교구 : 구역마다 기도와 배가운동이 일어나도록

· 제14교구 : ① 믿지 않는 식구

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②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구가 되게 하소서.

· 제15교구 : 교구 식구들이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소서.

· 제16교구 : ① 교구 일꾼 모두가 성령 체험하여 능력받고 전도에 힘쓰게 하소서. ② 모든 가정에서 복음화되고 진리로 충만하도록

· 제17교구 : 교구 식구들이 금요집회에서 능력 받고 배가 전도에 힘쓰도록

· 제18교구 : 말씀과 기도 생활로 교구 가족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9. 교구 기도 제목

· 제1교구 : 허정호 성도(교통사고), 손용권 성도(위암), 장성준 집사(중풍), 이수자 집사(골상), 김진백 어린이(성장호르몬 장애), 박명자 집사(중풍), 오덕환 성도(뇌졸중)

· 제2교구 : 임경남 집사(간질환), 윤원노 권사(치주), 조종원 권사(치주), 박경자 성도(위암)

· 제3교구 : 석옥순 권사, 김종환 성도(위장암), 허옥순 성도(장암), 양익준 성도, 전학도 성도(신부전)

· 제4교구 : 이원철 장로(중풍), 노원석 성도(중풍), 고현찬 원로 권사(노환), 강신주 권사(암), 김문현 성도(직장암), 김진경 집사(장기 약화), 최동욱 집사(신경통), 오현숙 권사(신경성디스크), 신순동 권사(중풍), 신용호

집사(중풍)

· 제5교구 : 김정임 권사(당뇨, 혈압), 유효열 권사(간경화), 박경옥 권사(위장암), 김호식 성도(요도암)

· 제6교구 : 조예지 야기(목수술), 김익희 성도(척추 수술), 전태호 집사(다리 신경통)

· 제7교구 : 김종만 집사(당뇨), 서명철 성도(눈), 이정희 성도(무기력증), 박병철 성도(교통사고), 박영숙 권사(다리), 김춘경 권사, 심의숙 권사(당뇨), 심영보 집사(고혈압), 전일운 집사(신경통), 서덕순 권사, 조승의 집사, 이현미 권사(허리 디스크), 이금희 성도(폐암), 한선옥 집사(고혈압), 김현자 성도(고혈압)

· 제8교구 : 조유남 성도(심장판막 수술), 조봉호 성도(뇌졸중), 이학주 권사(위암 수술), 이창호 성도(당뇨 합병증), 이규빈 집사(중풍), 이순애 권사(갑상선), 이광필 권사(간질환), 이상신 성도(목), 김은동 성도(폐결핵), 김준호 성도(교통사고)

· 제9교구 : 박옥란 성도(신장수술), 최금자 성도(전신암), 안병호 집사(협심증), 이종현 성도(차별적 어린이(기관지))

· 제10교구 : 조명순 성도(관절염), 김성태 성도(중풍), 이용권 성도(위암), 박효삼 성도(중풍), 이명형 성도(중풍), 김유미 성도(십이지장 수술 입원중), 강호빈 성도(교통사고 수술 입원중), 박관배 성도(교통사고 수술 입원

중), 최재진 어린이(교통사고 수술 입원중)

· 제11교구 : 지명숙 성도(중풍), 조성만 성도(정신질환), 조성철 성도(정신질환), 안정자 집사(교통사고), 한금례 집사(교통사고), 김원철 성도(간질환), 이수철 성도(광사 중 사고로 허리 다치고, 폐가 찢어짐), 허상은 성도(폐렴)

· 제12교구 : 실영순 권사(간질환), 한동석 성도(뇌를 다침), 김남옥 성도(손절단), 최지하 성도(폐수술), 김규정 성도(신경통), 김부여 권사(신경성 위장)

· 제13교구 : 인환식 성도(뇌졸중), 최기남 성도(합병증), 장경순 성도(장암), 박원용 성도(노환), 남은주 권사(관절염), 원도화 권사(당뇨 합병증, 기관지)

· 제14교구 : 장영환 성도(교통사고), 김선도 권사(중풍), 김미령 성도(교통사고), 이희철 집사(장암), 박원철 어린이(경개)

· 제15교구 : 김이복 성도(당뇨), 차병석 성도(중풍), 김진학 성도(의식 불명)

· 제16교구 : 이영숙 권사(중풍), 장영녀 권사(중풍), 최길봉 성도(중풍), 심귀선 권사(신장수술), 황익수 집사(중풍), 이관호 집사(중풍), 최창현 집사(정신질환), 남명희 성도(정신질환)

· 제17교구 : 정순금 집사(당뇨암)

(재로 발생하는 환자 명단은 계속 게재할 예정입니다.)